

34대 총학생회에 바란다

예전 같았으면 신학기를 맞아 이미 출범을 했어야 할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무관심으로 인한 투표참가를 미달로 아직 구성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캠퍼스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으니 조만간 34대 총학생회가 출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 군부 독재시절에는 학생들의 의사를 대변해 주는 자율적인 총학생회가 없었지만 1984년 이후 부활된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한 학생운동이 우리 나라의 민주화 운동에 큰 기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90년대 들어오면서 구소련과 동구가 붕괴되는 등 사회적 변화와 폭력을 동반한 극단적인 부정방법으로 인해 학생운동은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다. 또한 최근 급속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신세대들의 개인주의와 IMF관리체제 이후 어려워진 취업준비로 인해 학생활동은 구성원인 학생들의 관심으로부터도 점점 더 멀어져 가는 등 총학생회의 활동이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대의 지성과 이성을 대표하는 대학에서 학생활동은 지속되어야 하고 특히 우리 대학이 문을 연 지 50년이 되는 올해 학생활동을 주도해 나갈 34대 총학생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에 총학생회에 바라는 바 몇 가지를 적어본다.

첫째, 학생들을 잘 섬기는 총학생회가 되기를 바란다. 총학생회는 학생들로부터 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해 주고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해 줄 책임을 위임받은 유일한 대리인이다. 선거유세 때에는 이러한 점을 내세우지만 당선이 되면 학생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학생들의 권익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에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것도 바뀐다. 투쟁의 시대에는 카리스마와 정치력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하였다면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이 강조되는 이 시대에는 섬기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둘째, 도덕성을 갖춘 투명한 총학생회가 되기를 바란다. 학생들의 회비로 운영되는 총학생회의 예산은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 기성세대와 비교해 볼 때 학생들이 가진 상대적인 강점은 순수함과 패기이다. 온갖 종류의 부정부패로 얼룩진 기성세대를 비판하면서 그들과 똑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기성대세를 비판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다. 총학생회가 건전한 비판세력과 전체 세력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집행과 의사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학생들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를 바란다. 개인주의의 확산과 학부제 실시로 인한 소속감 결여로 학생들의 총학생회 행사 참여가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과거 총학생회의 주요 관심사였던 학외문제만 고집하지 말고 학생들의 수요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프로그램들로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학생회라는 원칙에 충실한 34대 총학생회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濟州大 經濟學科 姜起春)